

2008 광주·전남 체육계 결산

(3) 전남 전국체전 성공 개최

‘베이징 스타’ 대거 출전  
흥행 대박...기록도 풍성

전남은 올해 제89회 전국체육대회 개최를 통해 스포츠 인프라를 확충하고 발전된 지역 스포츠 위상을 전국에 떨쳐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에는 광주에서 제88회 전국체육대회가 열려 따뜻한 인심과 맛깔스런 음식, 깨끗하고 정돈된 경기장 시설 등 성공개최로 각광받았다.

올해는 여수를 비롯한 전남일원에서 전국체육대회를 ‘친환경 녹색체전’으로 치러 흥행한 남도 인심과 전국 최고의 음식을 자랑하는 전남을 전국에

지난 1998년 제주에서 열린 제79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육상 31개, 수영 1개의 한국 신기록이 나온 후 두 종목에서 10개 이상의 한국 신기록이 나온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육상과 수영에서 한국신기록이 쏟아져 나오면서 기초 종목 발전 가능성을 밝게 했다는 큰 의미를 남겼다.

또한 올림픽이 끝난 뒤 달남에 열린 체전에 올림픽 스타들이 대거 참가해 어느 대회보다 박진감 넘치고, 질 높은 경기를 팬들에게 선물했다.



광주시청 육상선수 김덕현

친환경 녹색체전... ‘깨끗한 전남’ 홍보

멀리뛰기 김덕현(광주) 등 한국新 18개

알리는 계기가 됐다.

전남은 대회 컨셉트를 ‘친환경 녹색체전’으로 표방하고 대회식에서 축포와 불꽃놀이를 하지 않는 등 체전사상 처음 시도된 친환경 체전에 큰 찬사를 받기도 했다.

또 이번 체전기간 동안 17개 시·군 분산개최를 통해 각 시·군별로 타 시·도 선수단에게 자기 고장의 특산물(배, 고구마, 복분자, 갯김치) 등을 맛보이거나 선물해 전남의 인심과 지역 특산물 홍보효과를 톡톡히 거두며 ‘다시 찾고 싶은 전남’의 이미지를 심었다.

대회운영 성공과 더불어 전남은 광주·전남 분리 이후 31년만에 치러진 이번 대회에서 5만4천697점을 획득해 종합3위의 성적을 거뒀으며 베이징올림픽 영웅들의 대거 참석으로 흥행면에서도 합격점을 받았다.

특히 김덕현(광주시청)이 육상 멀리뛰기에서 21년 만에 한국신기록을 갈아치우는 등 육상 7개, 수영 11개, 등 한국신기록 18개가 작성돼 질적으로도 한층 격상된 대회로 평가받았다.

박태환이 등장한 목포 실내 수영장, 배드민턴 이용대(20·삼성전기)가 출전한 여수 전남체육관 등에는 수 많은 인파가 모여 뜨거운 열기를 실감케 했다.

광주 체조 박은경(광주체고 2년)은 이번 대회에서 여고부 체조 5관왕(단체, 개인종합, 도마, 이단평행봉, 마루)에 오르는 기염을 토하며 여자 체조의 간판 스타로 떠올랐다.

박은경은 전국체전의 열기가 가시기도 전인 지난 11월 제4회 아시아체조선수권대회 여자 개인종합 평균대에서 금메달을 따내 지난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20년만에 남보를 선사하며 한국 여자체조의 기둥으로 자리잡았다.

전남은 제89회 전국체육대회 개최를 통해 원만한 대회운영과 흥행 성공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았으며, 풍성한 기록과 더불어 다시 찾고 싶은 전남의 이미지를 전국에 심는 성과를 올렸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나이는 나보다 한 살 어린데  
키가 커 말을 쉽게 못 놓았다”

■ 신지애, 위성미 첫 만남

신지애(20·하이마트·사진)가 2009 시즌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신인왕을 놓고 다툰 것으로 보이는 위성미(19·나이키골프)를 처음 만난 소감을 밝혔다.

신지애는 22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하나은행 주최로 열린 ‘신지애와 함께하는 LPGA 골프 레슨’ 행사에 참석해 “이달 초 열린 LPGA 투어 신인 오리엔테이션에서 위성미를 처음 만났다. 나이는 나보다 한 살 어린데 키가 워낙 커서 말을 쉽게 못 놓았다”라며 “좋은 친구이자 라이벌을 만난 것 같아 내년 시즌이 더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155cm인 신지애와 183cm인 위성미의 키 차이는 무려 28cm로 위압감을 느낄 만도 하다.

올해 LPGA 투어에서 첫 우승을 일궈냈던 브리티시오픈 최종 라운드 13번홀부터 18번

홀까지 영상을 함께 보면서 소감을 전한 신지애는 “13번 홀에서 긴 퍼트(약 13m)가 성공했을 때는 온몸에 닭살이 막 돋았다”라고 말해 장내를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당시 2위 후도 유리(일본)에 2타 앞서 있던 신지애는 이 버디 퍼트로 3타 차로 달아나며 승기를 잡았다.

신지애는 “18번 홀을 끝냈을 때보다 두 번째 샷을 하고 그린으로 가는 데 많은 걸러가 일제히 박수를 보내줄 때가 더 감동적이었다. ‘이 순간을 위해 10년간 골프를 쳐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눈물이 날 났었다”라고 그때 느낌을 전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하나은행 골드클럽 회원들을 상대로 윈포인트 레슨도 했다. 추천을 통해 기회를 얻은 4명에게 일일이 조언과 함께 자세를 잡아줬다. “퍼트 노리치 말고 퍼트하기 쉬운 곳에 공을 떨어트린다는 생각을 가져라”, “번개샷을 할 때는 클럽 페이스를 최대한 열고 8타 스윙을 한다는 느낌으로 바깥쪽으로 돌아나가서 안쪽으로 쳐라”, “퍼트를 할 때는 백스윙을 작게 해야 리듬을 유지하기 편하다” 등 귀에 쏙쏙 들어오는 한 마디에 골드클럽 회원들은 외마디 탄성을 내지르지 못했다.

이달 말 호주 골드코스트로 출국하는 신지애는 2009년 2월5일부터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유럽여자프로골프 ANZ 레이디스 마스터스에 출전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앤서니 김 웨브론월드챌린지 3위...최경주 9위

앤서니 김(23·나이키골프)이 올해를 결산하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마지막 이벤트 대회 웨브론월드챌린지에서 아쉽게 우승컵을 넘겨줬다.

앤서니 김은 22일(한국시간) 캘리포니아주 사우전드오코스의 서우드필드장(파72·7천27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라운드를 선두로 출발했지만 14번홀(파4)과 15번홀(파3)에서 나온 티샷 실수를 만회하지 못하고 1오버와 7타에 그쳤다.

최종합계 7언더파 281타를 친 앤서니 김은 헨터 메이헌(미국)과 함께 공동 3위로 밀렸고 후반에 무서운 기세로 치고 올라온 비제이 싱(인도)은 11언더파 277타를 쳐 대회 주최자 타이거 우즈(미국)가 주는 우승컵을 받았다.

한편 최경주(38·나이키골프)는 전반에만 더블보기 1개, 보기 2개를 기록하는 등 4타를 잃어 공동 9위(2오버파 290타)로 대회를 마쳤다. /연합뉴스



장정구 前 세계복싱 챔피언  
‘나는 파이터...’ 출판 기념회

“내 인생의 한 부분을 지울 수 있다면 링바다에서 뒹굴던 굴욕의 순간도 아니다. 그 시간은 바로 전처와 지낸 3년의 결혼 생활이었다. 그때는 매 맞고 돈 벌기가 삶을 정도였다.”

‘장구’ 장정구(45)가 2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출판 기념회를 갖고 ‘나는 파이터다-영원한 챔피언’이란 자서전을 공개했다. (사진)

장정구가 약 5개월 동안 틀림이 써 온 219쪽 분량의 자서전에는 권투를 시작한 배경과 챔피언에 오르기까지 과정, 복싱에 대한 자긍심 등 그가 그동안 느꼈던 감동과 좌절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80년 세계 프로복싱 무대 경량급을 주도했던 전 세계복싱평의회(WBC) 라이트플라이급 챔피언에 스투 살의 나이에 올라 15차 방어전까지 성공한 장정구에게는 첫 결혼에 실패한 지 10년 만에 아픈 기억이 되풀이되고 있다.

부산에 장정구체육관을 운영하면서 후진양성에도 힘을 쏟은 장정구는 재혼한 이숙경씨 사이에서 현재 20살, 13살 된 딸 두 명을 낳았다. /연합뉴스

이세돌 명인전 2연패

강동윤 8단에 불계승

종합 전적 3승1패

이세돌이 2년 연속 명인타이틀을 차지했다.

이세돌 9단은 강원도 정선 하이원리조트 4층 특설대극장에서 벌어진 제36기 하이원배 명인전 결승5번기 제4국에서 강동윤 8단을 맞아 백으로 124수만에 불계승해 종합전적 3-1로 우승을 차지해 상금 1억원을 받았다.

이날 이세돌은 대국 초반 흥남바둑을 두는 이색전략을 보였다. 강동윤이 15번홀 수를 천원위에 두면서 흥남바둑이 깨지자 즉각 흑진영에 뛰어들어 흑과작전에 나선 이세돌은 하반기에 초도화시키며 우세를 확보한 뒤 초반에 침입한 흑을 추격하며 수를 내 승부에 빼

기를 박았다. 12월들어 이동일을 제외하면 거의 매일 공식대국을 치르고 있는 이세돌은 20일에는 맥스커피배에서 원상진에게 패해 체력적 한계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이번 승리로 말끔히 씻고 개인전 국내 최대기전인 명인전을 2연패하는 기쁨을 누렸다.

올 시즌 삼성화재배, LG배, TV아시아대회 등 국제대회 우승컵만 3개를 따냈던 이세돌은 명인전 정상에 올라 올해 첫 국내 타이틀을 따며 통산 28번째 왕관을 쓰게 됐다.

역대 최다우승 랭킹 6위에 올라있는 이세돌은 9위 유창혁 9년(24개)과 차이를 4개로 벌이면서 30개로 공동3위를 기록하고 있는 서봉수 9년, 김인 9년, 조남철 9년(작고)에 두 개 차이로 다가갔다. 앞으로 타이틀 3개만 더 따내면 조훈현 9년(157회), 이창호 9년(136회)에 이어 단독 3위로 올라서게 된다. /연합뉴스

대승공인중개사 062)954-7700, 010-9468-7959. 수완지구 아파트 매매·임대전문. 토지매매, 분양권, 임대분양, 노블메디칼센터 임대분양, 수완지구 중심상권, 수완지구 용지매매 및 개발상담.

正心 正視 正行 명당 공인중개사 062)431-2834. (H.P) 010-6480-2834. 추천물건, 토지매매, 분양권, 임대분양, 수완지구 용지매매 및 개발상담.

금당부동산 062)223-7400, 016-632-5659. 매매·교환·개발·건축부동산을 구하며 최선을 다해 해결하겠습니다. 공사기·감정기 70%이하, 매매·교환, 임대분양, 분양권, 임대분양.

상무랜드공인중개사 02)383-5221, 011-608-5221. 빌딩, 토지, 기타용도, 기타투자. 상무랜드공인중개사, 빌딩, 토지, 기타용도, 기타투자.

대인동상일부동산 02)223-1140, 020-811-802-2532. 모델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대인동상일부동산, 모델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